논어 5편 공야장 26장 · 원문·풀이

顏淵、季路侍。子曰：「盍各言爾志？」子路曰：「願車馬衣裘，與朋友共，敝之而無憾。」顏淵曰：「願無伐善，無施勞。」子路曰：「願聞子之志。」子曰：「老者安之，朋友信之，少者懷之。」

독음 · 안연계로시 자왈 합각언이지 자로왈 원거마의구 여붕우공 폐지이무감 안연왈 원무벌선 무시로 자로왈 원문자지지 자왈 로자안지 붕우신지 소자회지

쉬운 풀이(요약) · 자로는 재물을 벗과 나누고 싶어 했고, 안회는 잘한 일을 자랑하거나 수고를 내세우지 않으려 했다. 공자는 노인을 편안하게 하고 벗의 신뢰를 얻으며 젊은이를 품고 싶다고 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顏 얼굴 안 / 淵 못 연 연 / 季 끝 계 계 / 路 길 로 로

侍 모실 시 시 / 子 아들 자 / 曰 가로 왈 / 盍 덮을 합 합

各 각각 각 각 / 言 말씀 언 언 / 爾 너 이 이 / 志 뜻 지 지

願 하고자할 원 원 / 車 수레 거 거 / 馬 말 마 마 / 衣 옷 의 의

裘 갓옷 구 구 / 與 너울너울할 여 여 / 朋 벗 붕 / 友 벗 우 우

共 함께 공 공 / 敝 옷 해질 폐 폐 / 之 갈 지 / 而 말이을 이

無 없을 무 무 / 憾 섭섭할 감 감 / 伐 칠 벌 벌 / 善 착할 선 선

施 베풀 시 시 / 勞 일할 로 로 / 聞 들을 문 문 / 老 늙은이 로 로

者 놈 자 / 安 편안할 안 안 / 信 믿을 신 신 / 少 적을 소 소

懷 품을 회 회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